

## 서울市内 實業系 女高生들의 性知識 態度 및 行爲에 關한 調查研究

襄 南 淑

—Abstract—

###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mmerci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Toward Sex

Nam Sook Bae

Sex education is necessary for the youth that they should have an adequat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eir adolescent period.

Four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know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of commerci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2. To know their actual state for th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3. To compare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day time school students with those of night time school students.
4. To compa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with the individual level.

Data were collected on 986 students in Seoul from April 1 to April 10, 1983. As the result of this surve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 (1) The level of knowledge of day time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physiology of female and pregnancy is shown higher than those of night time students. 64.2%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the organ producing ovum, 56.4% the ovulation period, 95.6% the cause of pregnancy, 74.5% the pregnatable period and 12.7% the place of fertilization.
  - (2) Out of 986 respondents, 71.8% knew about contraceptive method correctly, and day time school students knew litter better than night time school students, by showing 73.9% and 69.7% respectively. They knew about contraceptive method with 'oral pills', 'menstrual cycles', 'condoms', and 'loops' in the same order.
  - (3) Kinds of venereal disease was correctly known by 37.9%. Day time students knew much better than night time school students, by showing 67.8% and 7.9%, respectively. Transmission method of venereal disease was correctly known by 28.3%. Day time students knew much better than night time students, by showing 51.2% and 5.3%, respectively.

(4) The major information source of sexual knowledge was 'book and magazine' (39.9%) and 'friends' (27.4%).

2. Actual state of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1) Out of 986 respondents, 84.0% answered that premarital purity should be kept.

(2) Out of 986 respondents, 60.8% had an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45.2% of students with opposite sex reported introduction of their friends as the main channel of making an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3) Of those who responded to this study 13.8% reported having masturbation, 21.5% kissing, 6.2% petting and 3.7% sex intercourse.

(4) 64.8% had sexual problems, which was menstrance (27.2%),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25.4%). The main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were consultation with 'friends' and 'books and magazine' percentage being 39.1% and 30.8%, respectively, whereas very small students discussed with 'teachers' and 'parents' percentages being 0.3% and 5.9%, respectively.

(5) Out of 986 respondents, 62.2% had experience in educating about sex, the percentage of day time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night time school.

(6) 88.2% of students wanted sex education in school, which were 'general information about sex' (35.4%), 'sexual morality and solution of sexual desire' (18.5%),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13.3%) and 'marriage and role of man and woman' (12.4%) in the same order. They wanted to be instructed about sexes in the lecture of physical education, home economics, biology, military training (59.9%), regular curriculum (17.5%), special lecture (16.9%) and by the counselor or school nurse (5.7%).

3. Analyse concerning the factors about the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1) The better school record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2) Those who have the religion considered the permarital purity more important than those who have not, the percentage showing 86.7% and 80.7%, respectively.

(3) The result of dyad analysis of making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in the friendship network showed that a high index of the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tends to be a high adoption of making one at the individual level in the group, while the low index tends to be a low adoption of making one in the group.

## I. 結 論

###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性은 人間本能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人格形成과 함께 自然的으로 成熟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性問題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社會的 禁忌로서 看做되어 性에 對한 科學的 知識은 물론 教育의 教材로서도 選擇되지 못했다.

生物學的인 側面에서의 性에 關한 學問的인 發達は 現代醫學의 發達과 더불어 生殖 生理를 中心으로 昭詳하게 밝혀지고 있으나, 社會的인 側面에서는 人格發達 過程에서 이러한 性에 關한 知識이 教育되지 못하고 道

德的인 禁忌事項으로 오래 存續하였다.<sup>11)</sup> 그러다가 19 C末 Freud의 精神分析學의<sup>15)</sup> 發展以後 性的 心理的 的 基 礎가 밝혀지면서 많은 學者들에 의해 社會的 側面에서 性的 必要性이 強調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傳統的인 儒敎思想으로 性에 對한 禁忌 性이 特히 強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文化背景에서 자라난 靑少年들은 性에 對한 올바른 知識과 態度를 갖지 못함으로써 人格發達 및 性格形成에 障礙가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反社會的인 脫線과 性犯罪等 많은 社會的 問題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Hurlock<sup>21)</sup>의 理論에 依하면 16~18歲인 青年期는 같은 年齡의 異性에 對한 興味와 關心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情緒發達에 대단히 重要的 時期라고 한다. 特히 女

性들의 경우에는 男子보다 性的 成熟과 精神發達이 빠른 傾向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古來로부터 傳習된 男尊女卑 思想으로 女性에 對해서는 一般的으로 性에 對해 더욱 抑制시키고 勤愼하게 하여 왔으므로 이는 正常的인 情緒發達을 障礙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現代教育이 이루어지고 男女間의 交際가 比較가 比較의 自由로워진 社會構造의 變化속에서 人格形成 및 情緒의 發達過程에서의 性的 位置는 더욱 重要視되었다. 特히 1983年 3月부터 全國的으로 實施된 中高等學生의 頭髮 및 服裝 自律化에 따라 靑少年들의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가 한층 달라질 수 있다는 環境變化를 두고 보건데 이에 대처할 能動的인 學校 性教育 問題가 時急해졌다.

이러한 時代의 變化에 따라 서울特別市 教育研究院<sup>10)</sup>에서는 學校教育資料로서는 처음으로 教師用 性教育 資料를 發刊하여, 各級學校 關聯 教科目 教師들에게 性教育 指針書로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性教育 資料는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現實的인 性問題를 充分히 고려하여 準備된 指針書로는 보이지 않으며 더우기 校照·頭髮 自律化 以後의 靑少年들의 必理的 變化 및 性에 對한 葛藤의 對處事項에 對해서는 未治한 것으로 判斷된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過去 靑少年들에 對한 性知識·態度 및 行爲調查가 다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本研究는 時期的으로 대단히 重要하다고 보며, 本研究를 통하여 밝혀진 資料는 現實的인 性教育의 方向을 設定하는데 絶對的인 도움이 될 것이다.

## 2. 研究 目的

本 研究의 一般的인 目的은 靑少年기에 올바른 性知識, 態度 및 行爲를 갖추도록 性教育을 實施해야 한다는 前題下에, 實業系 女高生들의 性知識, 態度 및 行爲를 把握하여 向後 高等學校에서의 效率的인 性教育 計劃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로 提供하고자 試圖하였다. 이를 위한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內 實業系 女高生들의 性知識 程度를 把握한다.
- 2) 서울시內 實業系 女高生들의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實態를 把握한다.
- 3) 晝夜間 女高生들의 性知識, 態度 및 行爲를 比較한다.
- 4) 性知識 態度 및 行爲와 個人的 特性과의 關聯要因을 比較한다.

## II. 研究 方法

### 1. 調查對象 및 調查方法

本調查의 對象은 서울시內 位置한 實業界 女子高等學校中 晝夜間이 함께 있는 江北, 江南, 江東 各地域當 3個校를 任意 選定하여 各級學校 3學年中에서 晝間 3學級, 夜間 3學級 總 18學級 學生인 1,044名을 調查 標本對象으로 하였다. 그중 資料가 不充分한 58名을 除外하고 晝間 494名, 夜間 492名을 합한 總 986名의 資料를 分析하였다.

實業系 3學年 女學生을 選定하여 晝夜間으로 比較한 理由는, 이들은 大學 進學보다는 卒業과 同時에 大部分 社會로 進出하게 되며 가까운 將來에 性知識, 態度가 實生活에 適用되어 行爲로 나타나게 될 것이나, 이들에 對한 具體的인 性教育 方案이 없는 現時點에서 볼때 問題性이 큰 集團이라고 본다.

또한 晝夜間 學生들은 學校 日課 進行時間의 差異로 因하여 校外活動 時間이 서로 다르므로, 3年間을 이런 生活속에 各各 適應되어 性知識, 態度, 行爲에 있어서도 晝夜間의 差異가 클 것이라는 假定下에 實業系 3學年 女學生을 選定하여 晝夜間으로 나누어 比較 分析하였다.

本調查 實施하기 前에 說問紙의 妥當性を 檢定하기 위해 本調查 對象者와는 無關한 實業界 女子高等學校 2學年 學生 25名을 對象으로 事前 調查하였다. 그 結果 說問紙 作成 所要時間, 問項別 用語解析 및 正確한 內容 傳達 與否等을 分析한 後, 調查 說問紙를 修正, 補完하여 再作成한 後 完成하였다.

調查期間은 1983年 4月 1日부터 10日까지 였으며, 事前에 調查對象 學校의 敎練科 擔當 教師에게 本調查의 趣旨와 意義를 說明한 後 授業中 學生들에게 配付토록 하고, 說問紙 作成要領은 보다 正確한 應答을 얻기 위해 學生間의 冊床 간격을 띄워 열 學生이 볼 수 없도록 注意시키고 自由스런 雰圍氣에서 說問紙를 作成할 수 있도록 教師가 複道에 나가 있다가 回收토록 했으며 無記名으로 記入토록 했다.

### 2. 資料處理 및 分析

本調查에서 蒐集된 資料는 符號化한 뒤 穿空作業과 誤謬資料의 檢空作業을 거쳐 電算 프로그램(SPSS)를 利用하여 統計 處理하고, Chi Square( $\chi^2$ ) 檢定法을 利用하여 統計的인 有意性を 檢定하였다.

分析內容은 1) 調查 對象者의 性知識 程度 2) 調查 對象者의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 實態 3) 性知識, 態

度 및 行爲에 對한 晝夜間別 比較 4) 性知識, 態度 및 行爲에 對한 關聯要因 分析 等이다.

調査對象者의 性知識 程度를 把握하기 爲해 生殖 生理와 關聯된 女性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 避妊器具 使用法에 關한 知識, 性病에 關한 知識, 性知識의 出處 等을 晝夜間別 比較하였다.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 實態는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異性交際 經驗 實態, 性經驗 實態, 性苦悶의 內容 및 處理方法, 學校에서의 性教育 經驗 有無 및 滿足程度, 希望하는 性教育 內容 및 時間等을 晝夜間別로 比較하였다. 性知識, 態度, 行爲에 對한 關聯要因 分析 으로 成績에 따른 性知識 程度, 宗教 有無에 따른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校友集團內의 異性交際 程度가 個人의 行爲에 미치는 影響等을 分析하였다.

여기서 校友集團內의 異性交際 影響을 分析하기 爲해 參考한 理論의 背景은 Durkheim<sup>20)</sup>이 말하기를 個人은 社會의 性格에 따라 形成된다'고 했으며, Homans<sup>20)</sup>는 '不健康한 個人은 不健康한 社會를 만들고, 不健康한 社會는 不健康한 個人을 만든다'는 社會學的 理論에 依據해서 校友集團內의 異性交際 行爲 程度가 異性交際를 하고 싶다는 衝動을 誘發하여 個人의 行爲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고 集團과 個人과의 影響을 分析하였다.

分析方法是 調査對象者들을 個人別 校友關係를 나타

내는 校友網(Friendship Network)으로 나누고 이 校友網속에서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사람數를 基礎로하여 '校友 異性交際 指數'를 使用하였으며 그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校友 異性交際 指數

$$= \frac{\text{個人 校友網속에 異性交際中인 校友數}}{\text{個人 校友網속에 있는 全體 校友數}}$$

이 校友 異性交際 指數를 通하여 校友間의 異性交際 程度가 個人의 異性交際 行爲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 하였으나 이것은 個人과 個人間의 影響을 分析하는 Dyad-analysis式 接近方法이며, 校友集團內의 廣範圍 異性交際網을 通한 集團 全體의 影響은 알아볼 수 없었다.

### Ⅲ. 研究結果 및 考察

#### 1. 調査對象者의 性知識 程度

調査對象者의 性知識 程度는 女性 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 避妊器具 使用法에 關한 知識, 性病에 關한 知識, 性知識의 出處 等으로 나누어 晝夜間 別로 比較 하였다.

##### 1) 女性 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

生殖 生理와 關聯된 女性 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

表 1. 女性 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卵子가  만들어진 器管	$(x^2=45.65401 \text{ d.f}=1 \text{ p}<0.01)$					
正 答	633	64.2	368	74.5	265	53.9
誤 答	353	35.8	124	25.5	227	46.1
排 卵 時 期	$(x^2=25.65567 \text{ d.f}=1 \text{ p}<0.01)$					
正 答	556	56.4	318	64.4	238	48.4
誤 答	430	43.6	176	35.6	254	51.6
妊 娠 原 因	$(x^2=8.85898 \text{ d.f}=1 \text{ p}<0.01)$					
正 答	943	95.6	482	97.6	461	93.7
誤 答	43	4.4	12	2.4	31	6.3
妊娠可能한 時期	$(x^2=9.20884 \text{ d.f}=1 \text{ p}<0.01)$					
正 答	735	74.5	389	78.7	346	70.3
誤 答	251	25.5	105	21.3	146	29.7
受 精 되 는 場 所	$(x^2=0.78408 \text{ d.f}=1 \text{ p}>0.05)$					
正 答	125	12.7	58	11.7	67	13.6
誤 答	861	87.3	436	88.3	425	86.4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表 2. 避妊器具 使用法에 關한 知識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모 른 다	278	28.2	129	26.1	149	30.3
안 다	708	71.8	365	73.9	343	69.7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避妊使用法別 認知率* ( $\chi^2=2.11842$ d.f=1 $p>0.05$ )							
먹는 避妊藥	548	55.6	268	27.2	280	56.9	
月經 週期法	390	39.6	219	22.2	171	34.8	
Condom	255	25.9	171	34.6	84	17.1	
Loop	239	24.2	138	27.9	101	20.5	
基礎 體溫法	59	6.0	44	4.5	15	3.0	
Dia phragm	15	1.5	3	0.6	12	2.4	
其 他	14	1.4	12	2.4	2	0.4	

\* 1인이 1가지 以上 應答한 數字임.

은 女性 細胞인 卵子가 만들어 지는 器管, 排卵時期, 妊娠 原因, 妊娠 可能한 時期, 受精되는 場所, 等の 5 가지 質問을 하였으며, 應答은 正答과 誤答으로 分類한 뒤 正答率을 計算하여 實際로 얼마나 正確하게 알고 있는가를 把握하였다.

生植 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의 正答率은 <表 1>을 보면 「卵子가 만들어지는 器管」64%, 「排卵時期」56.4%, 「妊娠原因」95.6%, 「妊娠 可能한 時期」74.5%, 「受精되는 場所」12.7%로 各各 나타났다. 晝間이 夜間보다 더 높은 正答率을 보이고 있으나, 「受精되는 場所」만은 別다른 큰 差異가 없으며 正答率도 特히 낮게 나타나 應答內容을 살펴본 바 66%가 「子宮」에서 精子와 卵子가 受精된다고 하는 잘못된 知識을 갖고 있었다. 이는 女學生들이므로 아직은 實際의인 身體現狀으로 直接 나타나고 있는 知識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金(1982)<sup>8)</sup>의 研究에서는 「卵子가 만들어지는 器管」56.3%, 「排卵時期」34.9%, 「妊娠原因」83.5%, 「妊娠 可能한 時期」67.1%, 「受精되는 場所」22.8% 등으로 나타나 本研究에서 全般的으로 더 높은 正答率을 보였다.

## 2) 避妊器具 使用法에 關한 知識

妊娠을 防止하기 위한 手段으로 重要視되는 避妊에 對하여 器具用法까지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바 <表 2>를 보면 71.8%가 使用法을 알고 있었으며, 晝間(73.9%)이 夜間(69.7%)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避妊使用法을 알고 있는 學生中에서 避妊器具의 種

類로는 「먹는 避妊藥」55.6%, 「月經 週期法」39.6%, 「Condom」25.9%, 「Loop」24.2%, 「基礎 體溫法」6.0% 등의 順序로 알고 있었다.

이는 調査 對象者가 女學生이었으므로 男性 避妊法 보다는 女性이 使用하는 避妊方法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邊(1979)<sup>9)</sup>의 研究에서는 「먹는 避妊藥」57.3%, 「月經 週期法」30.0%, 「Loop」28.0%, 「Condom」24.2%, 「基礎 體溫法」3.8% 등의 順序로 本研究와 거의 비슷한 結果였다.

## 3) 性病에 關한 知識

性病에 關한 知識 程度를 알아보기 위해 開放型 質問(Openended Question)을 使用하여 性病의 種類와 傳播方法을 물어본 바 <表 3>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性病의 種類를 알고 있는 경우가 37.9%였으며, 晝間(67.8%)과 夜間(7.9%) 사이에 심한 差異를 나타냈다( $p<0.01$ ).

性病의 種類를 알고 있는 學生들 中에서 「淋疾·梅毒」2가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78.1%로 第一 많았으며, 「梅毒」만 아는 경우 17.6%, 「淋疾」만 아는 경우 4.8%의 順序였으며 以外の 性病의 種類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性病의 傳播方法을 알고 있는 경우가 28.3%였으며, 性病의 種類와 마찬가지로 晝間(51.2%)과 夜間(5.3%) 사이에 심한 差異를 나타냈다( $p<0.01$ ). 性病의 傳播方法을 알고 있는 學生들 中에서 「性交에 依해서」69.9%, 「皮膚 接觸에 依해서」17.2%, 「Kiss에 依해서」5.7%의 順序로 알고 있었다.

表 3. 性病에 關한 知識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性病의 種類 ( $x^2=381.15265$ d.f=3 $p<0.01$ )						
모 른 다	612	62.1	159	32.2	453	92.1
안 다	374	37.9(100.0)	335	67.8(100.0)	39	7.9(100.0)
淋 疾	16	1.6( 4.3)	12	2.4( 3.6)	4	0.8( 10.3)
梅 毒	66	6.7( 17.6)	52	10.5( 15.5)	14	2.8( 35.9)
淋 疾, 梅 毒	292	29.6( 78.1)	271	54.9( 80.9)	21	4.3( 53.8)
性病의 傳播方法 ( $x^2=257.93042$ d.f=5 $p<0.01$ )						
모 른 다	707	71.7	241	48.3	466	94.7
안 다	279	28.3(100.0)	253	51.2(100.0)	26	5.3(100.0)
性 交	195	19.8( 69.9)	178	36.0( 70.4)	17	3.5( 65.4)
Kiss	16	1.6( 5.7)	16	3.2( 6.3)	0	0 ( 0 )
對 話	5	0.5( 1.8)	5	1.0( 2.0)	0	0 ( 0 )
皮 膚 接 觸	48	4.9( 17.2)	42	8.5( 16.6)	6	1.2( 23.1)
其 他	15	1.5( 5.4)	12	2.4( 4.7)	3	0.6( 11.5)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表 4. 性知識의 出處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書 籍, 雜 誌	393	39.9	212	42.9	181	36.8
親 舊	270	27.4	96	19.4	174	35.4
學 校 教 育	219	22.2	140	28.3	79	16.1
映 畫, TV, Radio	72	7.3	29	5.9	43	8.7
父 母	19	1.9	10	2.0	9	1.8
其 他	13	1.3	7	1.4	6	1.2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x^2=44.81738$  d.f=5  $p<0.01$

學生들의 性病에 關한 知識 程度가 낮게 나타난 理由는 女子 高等學校의 教科目中 性病에 關한 內容은 전혀 言及되지 않았고, 教練科目에서도 社會的인 側面에서 性道徳만을 強調한 內容으로 10%程度 簡短히 言及하고 있는 等 性病에 對한 學校教育이 없는 탓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學校 教育에서는 性病 知識을 거의 얻을 수 없었다는 點과 一致하는 結果이며, 晝間 學生들 보다 夜間 學生의 경우 特히 知識 程度가 낮은 것이 問題點으로 나타나 이에 對한 教育 方案의 樹立이 時急하다고 본다.

4) 性知識의 出處

性知識의 出處는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映畫 雜誌」가 39.9%, 「親舊」가 27.4%, 「學校 教育」22.2%, 「映畫, TV, Radio」가 7.3%, 「父母」1.9%의 順序였다( $p<0.01$ ).

晝間 學年들의 경우는 「親舊」보다는 「學校 教育」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女性 生理 및 妊娠, 避妊, 性病等에 關한 知識 程度가 夜間보다 晝間이 높은 것과 一致하는 結果로서 「學校 教育」을 通하여 보다 正確한 知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反面에 「書籍 雜誌」와 「親舊」等이 性知識을 얻는 優秀 順位가 되고 있다는 것은 學生들이 올바른 體系的인 性知識

表 5.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반드시 지켜야 한다.	828	84.0	421	85.2	407	82.7
結婚할 사이면 안지켜도 된다.	36	3.7	14	2.8	22	4.5
사랑하는 사이면 안지켜도 된다.	61	6.2	39	7.9	22	4.5
結婦,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도 지킬필요 없다	10	1.0	5	1.0	5	1.0
모르겠다	51	5.2	15	3.0	36	7.3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chi^2=15.39526$  d.f=4 p<0.01

表 6-1. 病性交際 經驗 程度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異性交際 無經驗者	387	39.2	205	41.5	182	37.0
異性交際 經驗者	599	60.8	289	58.5	310	63.0
(過去 異性交際 經驗者)	(312)	(31.6)	(171)	(34.6)	(141)	(28.7)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	(287)	(29.1)	(118)	(23.9)	(169)	(34.3)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chi^2=13.31026$  d.f=2 p<0.01

表 6-2.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의 交際 程度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친한 親舊사이	242	84.3	97	82.2	145	85.8
사랑하는 사이	21	7.3	10	8.5	11	6.5
結婚을 約束한 사이	11	3.8	3	2.5	8	4.7
其 他	13	4.5	8	6.8	5	3.0
計	287	100.0	118	100.0	169	100.0

$\chi^2=3.58376$  d.f=3 p>0.05

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學校와 父母가 올바른 性知識을 提供하는 役割이 不充分한 것으로 보여진다.

金(1979)<sup>5)</sup>의 研究와 Thornburg(1981)<sup>27)</sup>의 研究에서 도 「父母」나 「學校 教育」보다는 「親舊」나 「書籍 雜誌」가 性知識의 出處로 더 높게 나타난 結果와 一致했다.

## 2.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 實態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 實態를 把握하기 위해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異性交際 經驗 實態, 性經驗 實態, 性苦悶의 內容 및 處理方法, 學校에서의 性教育 經驗 有無 및 滿足 程度, 希望하는 性教育 內容 및 時間等

을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는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84.0%로서 晝間(85.2%)과 夜間(82.7%)이 거의 비슷하게 높은 率을 나타냈으며 이는 學生들의 純潔에 對한 價値觀이 健全하다는 뜻으로 바람직하다. (p<0.01)

金(1979)<sup>5)</sup>의 研究에서는 92.8%, 邊(1979)<sup>9)</sup>의 研究에서는 81.5%로써 本研究 結果와 큰 差異가 없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는 學生이 10.9%

表 6-3. 異性を 알게 된 経路 및 交際時間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異性を 알게 된 経路 ( $x^2=27.52292$ d.f.=7 $p<0.01$ )						
親舊紹介	271	45.2	136	47.1	135	43.5
教 會	75	12.5	43	14.9	32	10.3
이웃에 살므로	61	10.2	24	8.3	37	11.9
野遊場이나 劇場	45	7.5	12	4.2	33	10.6
兄弔紹介	29	4.8	11	3.8	18	5.8
Club 活動	28	4.7	13	4.5	15	4.8
Penpal	24	4.0	6	2.1	18	5.8
其 他	66	11.0	44	15.2	22	7.1
交 際 時 間						
13	27	4.5	14	4.8	13	4.2
14	48	8.0	18	6.2	30	9.7
15	149	24.9	71	24.6	78	25.2
16	203	33.9	109	37.7	94	30.3
17	152	25.4	66	22.8	86	27.7
18	17	2.8	10	3.5	7	2.3
19	3	0.5	1	0.3	2	0.6
計	599	100.0	289	100.0	310	100.0

Mean Age 15.8

로써 少數이긴 하지만 이런 態度를 가진 경우, 將次 婚前 性問題로 因해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고 보므로 이러한 것을 고려한 教育內容으로 純潔을 重要視하고 自己 管理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指導 方案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 2) 異性交際 經驗 實態

調査對象者들의 異性交際 實態를 把握하기 위해 異性交際 經驗 程度,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의 交際 程度 異性を 알게 된 経路 및 交際時期 等を 把握한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表 6-1〉을 보면 異性交際 經驗率은 60.8%로 晝間(58.5%)보다 夜間(63.0%)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異性交際 經驗者中 現在 계속 交際中인 경우는 29.1%로 晝間(23.9%)보다 夜間(34.3%)이 역시 높았다. ( $p < 0.01$ )

이전의 調査와 年度別로 比較해 보면 1963年<sup>13)</sup>에는 30.8%, 1975 年<sup>3)</sup>에는 42.8%, 1979年<sup>5)</sup>에는 47.2%로 나타나 계속 增加되어온 傾向을 볼 수 있으며, 本研究의 60.8%와 比較時 增加趨勢가 急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

의 交際 程度는 大部分이 親舊사이(8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 7.3%, 「結婚한 사이」 3.8%로 나타난 學生들에 對해서도 關心을 가지고 올바른 方向의 性指導가 必要하다고 본다.

〈表 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異性交際 經驗群의 異性を 알게 된 経路는 「親舊紹介」 45.2%, 「教會에서」 12.5%, 「이웃에 살므로」 10.2%, 「野遊場이나 劇場에서 우연히」 7.5%, 「兄弔紹介」 4.8%, 「Club 活動」 4.7% 등의 順으로 나타나 大部分의 學生들이 異性交際를 하게된 動機가 바람직하지 못한 経路를 통해서라도 보며 晝夜間別로는 「野遊場이나 劇場에서 偶然히」와 「Pen Pal」에서 差異가 있으나 그 밖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異性交際 經驗群의 交際時期는 15歲~17歲 사이가 84.2%로 大部分을 차지했으며, 平均 異性交際 年齡은 15.8歲였다. 이는 Hurlock<sup>21)</sup>의 理論中 異性愛 段階의 始作인 15歲부터 一致하는 것으로 이 時期 性意識의 發達과 함께 異性에 對한 關心도 높아져 異性交際를 하고 싶다는 慾求가 直接的인 行爲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健全한 異性交際는 學生들의 知的, 情緒的 成熟을 돕고 올바른 性役割을 위한 社會學習의 길이 된다.<sup>10)</sup>



表 7. 性經驗 程度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自慰行爲 經驗 ( $x^2=14.14571$ d.f=1 $p<0.01$ )						
없 다	850	86.2	405	82.0	445	90.4
있 다	136	13.8	89	18.0	47	9.6
Kiss 經驗 ( $x^2=12.40189$ d.f=1 $p<0.01$ )						
없 다	774	78.5	411	83.2	363	73.8
있 다	212	21.2	83	16.8	129	26.2
愛撫 經驗 ( $x^2=1.15324$ d.f=1 $p>0.05$ )						
없 다	925	93.8	468	94.7	457	92.9
있 다	61	6.2	26	5.3	35	7.1
性交 經驗 ( $x^2=3.53496$ d.f=1 $p>0.05$ )						
없 다	950	96.3	482	97.6	468	95.1
있 다	36	3.7	12	2.4	24	4.9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따라서性に對한關心은靑少年期의 두드러진 現狀이므로 家庭, 學校, 社會는 學生들의 異性交際를 無條件 禁止할 것이 아니라 陽性化시켜 健全하게 指導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다.

3) 性經驗 實態

調査對象者의 性經驗 程度는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自慰行爲 經驗」13.8%, 「Kiss 經驗」21.5%, 「愛撫 經驗」6.2%, 「性交 經驗」3.7% 등으로 나타났으며, 晝夜間別로는 自慰行爲 經驗은 晝間이 높은 反面에 그 밖의 경우는 모두 夜間이 높았다.

그 理由로서는 <表 6-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晝間 學生들 보다 夜間 學生들의 現在 異性交際 經驗率이 높다는 것과 關聯해서 晝間 學生들은 性衝動을 自己 스스로 解消하는 反面에 夜間 學生들은 異性を 통해 直接 行爲로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以前的 調査와 年度別로 比較해 보면 自慰行爲 經驗은 1970年<sup>2)</sup> 8.5%, 1979年<sup>9)</sup> 12.2%로서 本研究 13.8%와 比較時 계속 增加趨勢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性交經驗도 역시 1975年<sup>3)</sup> 2.93% 1979年<sup>5)</sup> 3.0%로서 本研究 3.7%와 比較時 계속 增加 趨勢에 있었다.

Lancet<sup>23)</sup> 등의 研究에서는 自慰行爲 經驗 20.6%, 性交經驗 16.0%로 우리와 큰 差異를 나타냈다.

性經驗群의 性經驗 時期는 平均年齡이 「Kiss 經驗」16.3歲, 「愛撫 經驗」16.1歲, 「性交 經驗」16.7歲였으며 性經驗의 相對者는 주로 같은 「高等學生」이었고 「職場人」, 「大學生」, 「親戚」 등의 順이었다.

이와같이 계속 增加 趨勢에 있는 性行動을 健全하게 誘導할 수 있는 對策 樹立이 時急하며, 性經驗이 있는 學生들에 對한 指導問題까지 함께 고려한 性教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性苦悶의 內容 및 處理方法

<表 8>을 보면 性苦悶이 있다고 對答한 學生의 64.8%로서 金(1979)<sup>8)</sup>의 研究에서 52%, 邊(1979)<sup>9)</sup>의 研究에서 58.3%와 比較時 本研究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社會的 變化에 따라 靑少年들의 性苦悶도 날로 增加되는 反面, 이를 解決할 수 있는 教育方案이 具體的으로 設定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긴 問題點이라 본다. 性苦悶이 있는 學生들 中에서 性苦悶의 內容으로는 「生理 問題」27.1%, 「異性交際」25.4%가 主要 苦悶內容이었다. 生理問題에 對한 苦悶이 많은 理由는 女學生들이므로 女性의 身體的인 生理現狀에 對해 自然히 關心이 많다고 보며, 異性交際에 對한 苦悶이 많은 理由는 道德的 慣習이 이를 抑制해 왔으므로 異성과 사귀어 보고 싶은 慾求를 抑制하게 되거나, 或은 實際로 交際中이라 해도 非公開的으로 사귀게 되어 罪責感을 느끼거나 不健全한 性問題를 誘發하게 되어 苦悶하게 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性苦悶이 있는 學生들 中에서 性苦悶의 處理方法으로는 「親舊와 相議」39.1%, 「雜誌 書籍을 본다」30.8%, 「혼자 苦悶中」16.6% 등으로 나타나 「父母와 相議」5.9%, 「先生님과 相議」0.3%와 比較時 性苦悶을 解決할 수 있는 가장 適當한 相談者인 父母나 育師와

表 8. 性苦悶의 內容 및 處理方法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性苦悶이 없다	347	35.2	176	35.6	171	34.7
性苦悶이 있다	639	64.8(100.0)	318	64.4(100.0)	321	65.2(100.0)
性苦悶 內容 ( $x^2=11.26349$ d.f=7 $p>0.05$ )						
月經 問題	173	17.5( 27.1)	93	18.8( 29.2)	80	16.3( 24.9)
性的 成熟의 問題	111	11.3( 17.4)	66	13.4( 20.8)	45	9.1( 14.0)
性苦悶의 相談者가 없어서	107	10.9( 16.7)	53	10.7( 16.7)	54	11.0( 16.8)
性衝動의 解消問題	61	6.2( 9.5)	26	5.3( 8.2)	35	7.1( 10.9)
異性 交際	162	16.5( 25.4)	69	13.9( 21.7)	93	18.9( 29.0)
自慰 行爲	17	1.7( 2.7)	8	1.6( 2.5)	9	1.8( 2.8)
其 他	8	0.8( 1.3)	3	0.6( 0.9)	5	1.0( 1.6)
性苦悶의 處理方法 ( $x^2=11.77550$ d.f=7 $p>0.05$ )						
親舊와 相談	250	25.4( 39.1)	119	24.1( 37.4)	131	26.6( 40.8)
雜誌 書籍을 봄	197	20.0( 30.8)	103	20.9( 32.4)	94	19.1( 29.3)
혼자 苦悶中	106	10.8( 16.6)	48	9.7( 15.1)	58	11.8( 18.1)
언니와 相談	41	4.2( 6.4)	20	4.0( 6.3)	21	4.3( 6.5)
父母와 相談	38	3.9( 5.9)	26	5.3( 8.2)	12	2.4( 3.7)
先生님과 相談	2	0.2( 0.3)	0	0 ( 0 )	2	0.4( 0.6)
其 他	5	0.5( 0.8)	2	0.4( 0.6)	3	0.6( 0.9)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表 9-1. 性教育 經驗 有無 및 滿足 程度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性教育을 받은적이 없다	373	37.8	125	25.3	248	50.4
性教育을 받은적이 있다	613	62.2(100.0)	369	74.7(100.0)	244	49.6(100.0)
매우 滿足	30	3.0( 4.9)	11	2.2( 3.0)	19	3.9( 7.8)
滿 足	91	9.2( 14.8)	50	10.1( 13.6)	41	8.3( 16.8)
그저 그렇다	341	34.6( 55.6)	223	45.1( 60.4)	118	24.0( 48.4)
不 滿 足	110	11.2( 17.9)	71	14.4( 19.2)	39	7.9( 16.0)
매우 不滿足	41	4.2( 6.7)	14	2.8( 3.8)	27	5.5( 11.1)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x^2=89.34247$  d.f=5  $p<0.01$

相談하는 경우가 극히 낮은 反面에, 正確하지 못한 解決方法을 通해 性苦悶을 處理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問題點으로 指敵되었다.

### 5) 學校에서의 性教育 經驗 有無 및 滿足 程度

現在 教科內容으로 選定된 性教育이 全體의으로 實施되고 있지 못한 實情이므로, 授業中 部分的으로 나

마 性教育을 받아 본 經驗이 있다는 學生이 <表 9-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2.2%였으며, 晝間(74.7%)이 夜間(49.6%)보다 높은 差異를 나타냈다( $p<0.01$ ).

그러나 性教育을 받은 經驗이 있더라도 「滿足」하게 느끼는 경우 19.7% 程度인 것으로 보아 性教育을 받았어도 學生들 自身에게 도움이 될 程度의 充分한 教育內容이 되지 못한 것으로 思料된다.

表 9-2. 希望하는 性教育 內容 및 時間

區 分	計		晝 間		夜 間	
	No.	%	No.	%	No.	%
願하지 않는다	116	11.8	68	13.8	48	9.8
願한다	870	88.2(100.0)	426	86.2(100.0)	444	90.2(100.0)
願하는 內容	(x <sup>2</sup> =24.19344 d.f=7 p<0.01)					
性一般에 關한 知識	308	31.2( 35.4)	177	35.8( 41.5)	131	26.6( 29.5)
性慾의 問題와 性道德	161	16.3( 18.5)	81	16.4( 19.0)	80	16.3( 18.0)
異性 交際	116	11.8( 13.3)	43	8.7( 10.1)	73	14.8( 16.4)
結婚과 男女의 役割	108	11.0( 12.4)	42	8.5( 9.9)	66	13.4( 14.9)
身體構造 및 心身の 發達	84	8.5( 9.7)	40	8.1( 9.4)	44	8.9( 9.9)
生理衛生 및 生殖過程	83	8.4( 9.5)	38	7.7( 8.9)	45	9.1( 10.1)
其 他	10	1.0( 1.1)	5	1.0( 1.2)	5	1.0( 1.1)
願하는 時間	(x <sup>2</sup> =21.52773 d.f=4 p<0.01)					
關聯科目(體育, 家庭, 教練, 生物 等)	521	52.8( 59.9)	283	57.3( 66.4)	238	48.4( 53.6)
特 講	147	14.9( 16.9)	63	12.8( 14.8)	84	17.1( 18.9)
正規時間으로 配定	152	15.4( 17.5)	57	11.5( 13.4)	95	19.3( 21.4)
相談室, 養護室에서 小規模 討論	50	5.1( 5.7)	23	4.7( 5.4)	27	5.5( 6.1)
計	986	100.0	494	100.0	492	100.0

6) 希望하는 性教育 內容 및 時間

〈表 9-2〉를 보면 性教育을 實施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學生이 88.2%로 晝夜間 學生 거의 모두가 원하고 있었다(p<0.01).

希望하는 教育內容으로는 「性一般에 關한 知識」 35.4%, 「性慾의 問題와 性道德」 18.5%, 「異性交際」 13.3%, 「結婚과 男女의 役割」 12.4% 등의 順序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內容을 關聯敎科目 時間인 「體育, 家庭, 教練, 生物」 등의 授業中에 實施해 주기를 主로 원하고 있었다.

Watts<sup>28</sup>는 敎授 方法에 따른 性教育의 效果에 對한 實驗에서 Lecture method, Small group discussion, Audio-visual technique 등의 3가지 모두가 效果的이었다고 했으며, Tushup & Finner<sup>29</sup>도 性教育을 實施함으로써 學生들의 性行動 및 態度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變化시키는데 影響을 미쳤다고 했다.

性教育의 最先進國인 스웨덴<sup>4)</sup>에서는 이미 1933년에 中學校부터 體系的인 性教育을 始作하였고, 1955년에는 全國의으로 性教育을 義務敎育化하였을 뿐 아니라, 地域社會를 中心으로 各 地域에 性 相談所를 設置하고 性問題, 避妊, 出產指導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좀더 積極的으로 性教育 資料의 開發과 研究가 活潑히 進行되어 우리 實情에 맞는 內容의

性教育이 이뤄져야 하겠으며, 行政的인 뒷받침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強調한다.

3. 性知識, 態度 및 行爲에 對한 關聯要因 分析

1) 成績에 따른 性知識 程度

學業 成績에 따라 性知識 程度도 差異가 있을 것이라 보고 比較한 結果는 〈表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成績이 높을 수록 學生들의 性知識 程度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成績과 生殖 生理에 關한 知識과의 關係를 比較한 것이므로 關聯 敎科目인 生物, 家庭時間中에 生殖 生理에 關한 知識을 배우게 되므로 成績과 關聯되어 成績이 좋은 學生일수록 知識 程度도 높을 것으로 본다.

2) 宗教 有無에 따른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Gorden<sup>18)</sup>은 性理論에 對한 敎育은 性과 關聯된 問題를 豫防하는 重要한 要素라고 했다. 따라서 宗教的인 倫理意識이 婚前 純潔에 對한 價値觀 形成에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假定下에 宗教 有無와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를 알아 본 結果는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宗教가 있는 學生이 婚前 純潔을 더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金(1979)<sup>6)</sup>의 研究와도 一致된 結果였다.

表 10. 成績에 따른 性知識 程度

區	分	計		成 績					
		No.	%	上		中		下	
				No.	%	No.	%	No.	%
卵子가만들어지는器管		(x <sup>2</sup> =4.394041 d.f=2 p>0.05)							
正	答	633	64.2	183	68.8	264	64.1	186	60.4
誤	答	353	35.8	83	31.2	148	35.9	122	39.6
排卵 時期		(x <sup>2</sup> =3.72320 d.f=2 p>0.05)							
正	答	556	56.4	160	60.2	235	57.0	161	52.3
誤	答	430	43.6	106	39.8	177	43.0	147	47.7
妊娠 原因		(x <sup>2</sup> =10.46985 d.f=2 p<0.01)							
正	答	943	95.6	259	97.4	399	96.8	285	92.5
誤	答	43	4.4	7	2.6	13	3.2	23	7.5
妊娠 可能한 時期		(x <sup>2</sup> =0.26127 d.f=2 p>0.05)							
正	答	735	74.5	201	75.6	307	74.5	227	73.7
誤	答	251	25.5	65	24.4	105	25.5	81	26.3
受精되는 場所		(1.86653 d.f=2 p>0.05)							
正	答	125	12.7	37	13.9	55	13.3	33	10.7
誤	答	861	87.3	229	86.1	357	86.7	275	89.3
計		986	100.0	266	100.0	412	100.0	308	100.0

表 11. 宗教 有無에 따른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

區	分	計		宗 教			
		No.	%	有		無	
				No.	%	No.	%
반드시 지켜야 한다		828	84.0	464	86.7	364	80.7
結婚할 사이면 안 지켜도 된다		36	3.7	18	3.4	18	4.0
사랑하는 사이면 안 지켜도 된다		61	6.2	31	5.8	30	6.7
結婚,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도 지킬 필요없다		10	1.0	5	0.9	5	1.1
모르겠다		51	5.2	17	3.2	34	7.5
計		986	100.0	535	100.0	451	100.0

x<sup>2</sup>=36.98624 d.f=4 p<0.01

### 3) 校友集團內的 異性交際 影響 分析

Shepherd<sup>26)</sup>와 Homans<sup>20)</sup> 등의 理論에 依據, 集團의 價値와 態度가 個人의 價値와 態度 形式에 重要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假定下에 校友集團內的 異性交際 行爲가 個人의 異性交際 行爲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12〉를 보면 校友 異性交際 指數를 計算한 結果,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의 경우 指數가 높아질 수로 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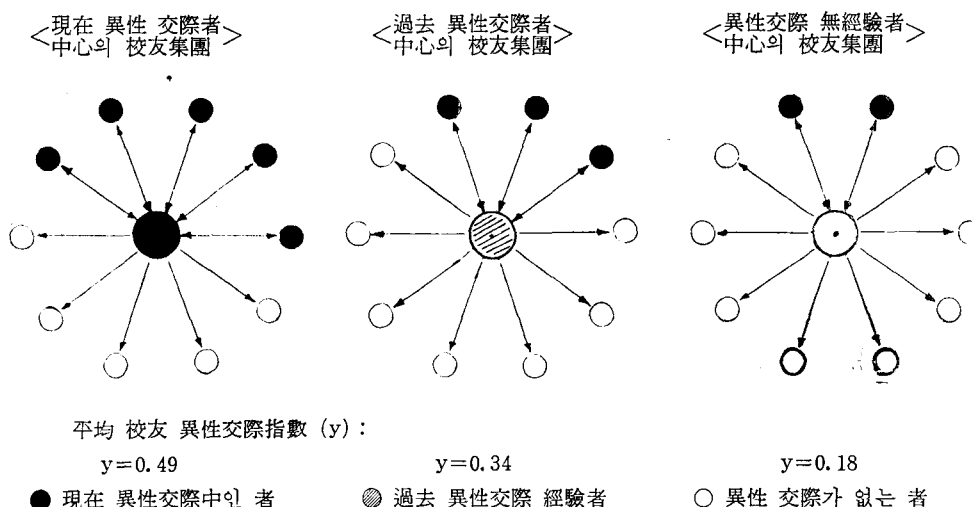
人別 異性交際 行爲도 增加되는 比率을 나타냈다. 여기서 指數가 높다는 것은 異性交際를 하는 校友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校友 異性交際 指數'가 0~0.20이 23.7%, 0.21~0.40이 30.1%, 0.41~0.60이 36.6%, 0.61~0.80이 56.9%, 0.81~1.0이 56.3%로 顯著히 增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反面에 異性交際 無經驗者인 경우는 '校友 異性交際 指數'가 높아질 수록 顯著한 減少率을 나타냈으며, 이는 異性交際를 하는 校友가 적을 수록 個人의 異性交

表 12. 校友集團內的 異性交際 影響 分析

區 分	計		校友 異性交際 指數				
	No.	%	0~0.20	0.21~0.40	0.41~0.60	0.61~0.80	0.81~1.0
異性交際無經驗者	387	39.2	40.3	34.0	28.2	13.8	9.2
過去異性交際經驗者	312	31.6	36.0	35.9	35.1	29.2	34.5
現在異性交際經驗者	287	29.1	23.7	30.1	36.6	56.9	56.3
計	9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圖 1. 校友 集團內的 異性交際 影響 分析圖



際 程度도 낮다는 것을 뜻한다.

平均 校友 異性交際 指數를 計算한 結果,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는 0.49, 過去 異性交際 經驗者는 0.34, 異性交際 無經驗者는 0.18로 各各 나타났다.

이에 對한 說明으로 <圖表 1>을 보면,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의 경우는 10名의 校友中 5名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으며, 圖表의 좌상角 方向은 校友間의 異性交際에 關한 影響力을 表示한 것인데, 이것은 異性交際中인 5名의 校友로부터는 異性交際 行爲에 對한 影響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5名의 校友로부터는 아무런 影響力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過去 異性交際 經驗者는 10名의 校友中 3名의 異性交際中인 校友로부터 異性交際에 對한 影響力을 받고 있으며, 異性交際 無經驗者는 10名의 校友中 2名의 異性交際中인 校友로부터 異性交際에 對한 影響力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本 研究 結果 校友間의 異性交際 行爲가 個人의 異性交際 行爲에 많은 影響을 미친다고 보며, 異性交際中인 校友가 많을 수록 親舊로부터 異性交際에 對한 影響을 많이 받게 되므로 異性交際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結 論

서울市內 位置한 實業界 女子高等學校 3學年 學生 986名을 對象으로 하여, 性知識, 態度 및 行爲를 調査하여 晝夜間別로 比較하고 이와 關係된 要因을 分析한 結果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調査 對象者의 性知識 程度

① 女性 生理와 妊娠에 關한 知識과 正答率은 「卵子가 탄들어지는 器管」 64.2%, 「排卵 時期」 56.4%, 「妊娠 原因」 95.6%, 「妊娠 可能한 時期」 74.5%, 「受精되는 場所」 12.7%였으며, 대체로 晝間이 夜間보다 높은 正答率을 보였다.

② 避妊器具 使用法을 알고 있는 경우는 71.8%로써 晝間(73.9%)이 夜間(69.7%)보다 약간 높았다.

避妊器具의 種類로는 「먹는 避妊藥」, 「月經 週期法」 「Condom」, 「Loop」등의 順이었다.

③ 性病의 種類를 알고 있는 경우가 37.9%로써 晝間(67.8%)과 夜間(7.9%)間의 큰 差異를 나타냈으며,

主로 「淋疾, 梅毒」2가지를 잘 알고 있었다. ( $p < 0.01$ ) 性病의 傳播方法을 아는 경우는 20.3%로서 역시 晝間(51.2%)과 夜間(5.3%) 間의 큰 差異를 나타냈다. 性病의 傳播方法은 「性交에 依해서」69.9%, 「病膺 接觸」17.2%, 「Kiss」5.7%의 順으로 對答했다. ( $p < 0.01$ )

④ 性知識의 出處는 「書籍, 雜誌」가 39.9%로 가장 높고, 「親舊」27.4%, 「學校」22.2%, 「映畫, TV, Radio」7.3%, 「父母」1.9% 등의 順이었다. ( $p < 0.01$ )

## 2. 調査 對象者의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 實態

① 婚前 純潔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84.0%였으며 晝夜間에 別다른 差異가 없었다. ( $p < 0.01$ )

② 異性交際 經驗率은 60.8%로 晝間(58.5%) 보다 夜間(63.0%)이 약간 높았으며, 現在 異性交際中인 경우 交際程度는 대부분이 「親舊 사이」(84.0%)인 것으로 나타났다. 異性を 알게 된 經路는 「親舊 紹介」가 45.2%로 第一 높고, 「教會에서」12.5%, 「이웃에 살므로」10.2% 등의 順이었으며, 異性交際 時期는 平均 15.8歲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性經驗率은 「自慰行爲 經驗」13.8%, 「Kiss 經驗」21.5%, 「愛撫經驗」6.2%, 「性交經驗」3.7%로 나타났으며 「自慰行爲 經驗」은 晝間이 높은 反面에, 그 밖의 경우는 夜間이 높게 나타났다.

性經驗時期는 「Kiss 經驗」16.3歲, 「愛撫 經驗」61.1歲, 「性交 經驗」16.7歲였으며, 性經驗의 相對者는 主로 같은 「高等學生」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性苦惱를 갖고 있는 경우가 64.8%로서, 晝夜間에 別다른 差異가 없었으며, 性苦惱 內容은 「生理 問題」가 27.2%로 가장 높았고, 「異性交際」25.4%, 「性的 成熟의 問題」17.4% 등의 順이었다. 性苦惱의 處理方法은 「親舊와 相談」39.1%, 「雜誌 書籍」을 본다가 30.8%, 「혼자 苦惱中」(16.6%) 등의 順이었고, 性苦惱의 가장 適切한 相談者인 「父母」(5.9%), 「教師」(0.3%)와 相議하는 경우는 가장 낮았다.

⑤ 學校에서 性教育을 받은 經驗이 있는 경우는 62.2%로서 晝間(74.7%)이 夜間(49.6%) 보다 높았으며, 性教育을 받은 經驗이 있더라도 「滿足」하는 경우는 19.7%로 낮게 나타났다. ( $p < 0.01$ )

⑥ 學校에서 性教育을 實施해 주기를 원하는 學生은 88.2%로서 晝夜間別로는 差異가 없었다. ( $p < 0.01$ )

希望하는 內容은 「性 一般에 關한 知識」35.4%, 「性慾의 問題와 性道德」18.5%, 「異性 交際」13.3%, 「結婚과 男女의 役割」12.4% 등의 順이었다. 이러한 內容을 59.9%는 關聯 教科目인 「體育, 生物, 家庭, 教練 時間中」에 實施해 주길 원했으며, 「正規時間으로 配正해서」가 17.5%, 「專門家를 招聘한 特別講義로」16.

9%, 「相談室이나 養護室에 모여 小規模 討論 討形式으로」5.7% 등의 順이었다.

## 3. 性知識, 態度 및 行爲에 對한 關聯要因 分析

① 成績에 따른 性知識을 보면, 性績이 높을 수록 性知識 程度도 높게 나타났다.

② 宗教 有無에 따른 婚前 純潔에 對한 態度는 宗教가 있는 學生(86.7%)이 宗教가 없는 學生(80.7%) 보다 婚前 純潔을 더 重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1$ )

③ 校友集團內의 異性交際 程度가 個人的 異性交際 行爲에 미치는 影響은 「現在 異性交際 經驗者」의 異性交際 指數는 0.49로서 10名의 校友中 5名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으며, 「過去 異性交際 經驗者」와 異性交際 指數는 0.34로서 10명 校夜中 3名이, 「異性交際 無經驗者」의 異性交際 指數는 0.18로서 10校夜中 2名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異性交際中인 校友가 많을 수록 個人的 異性交際 行爲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性教育에 對한 提言

性教育은 生活과 教育의 全領域에 걸친 人間教育<sup>12)</sup>이므로 어릴때 家庭에서부터 自然스럽게 始作되어야 하며, 性的인 變化가 두드러지는 靑少年期에 重點의인 性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 學校機關을 통한 性教育의 目標<sup>10)</sup>은 첫째, 日常生活에 必要한 基本習慣을 기르며 둘째, 知的 學習을 통하여 體系의이고 科學的인 性知識을 提供하고, 셋째, 올바른 性意識, 健全한 性態度, 分別있는 性倫理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靑少年들은 어릴때부터 家庭에서 性教育을 거의 받지 못한 탓으로 性에 對해 不正確하고 斷片的인 知識과 態度를 가졌기 때문에 學校教育을 통해 性教育을 實施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本調査 結果에 나타난바와 같이 學生들의 性知識出處는 「書籍, 雜誌」, 「親舊」 등이었고 「學校」나 「父母」를 통한 正確한 知識이 되지 못해 實際的인 性知識 程度가 낮았다. 性行動面에 있어서도 過去 研究와 比較時 顯著한 增加趨勢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異性交際 經驗率이 60.8%로 높은 것은 社會的 側面에서 傍觀할 수만은 없는 問題로서 낮은 性知識에 비해 學生들의 性行動은 점점 더 大膽해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64.8%의 學生들이 性苦惱를 갖고 있으나 이것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解決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學校에서 性教育을 받은적이 있더라도 거의 大部分이 不充分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現在까지 斷片的으로 行하여온 性教育內容이 學生들의 性問題를 도와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實態에 반해 自律化政策等の 社會變化로 學生들의 性에 對한 態度 및 行爲가 한층 開放的으로 나타날 可能性이 커진 現時點에서 性教育은 學校教育의 內容으로 重要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效率的인 性教育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學生들의 性에 對한 知識, 態度 및 行爲實態를 把握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實情에 알맞은 多様な 集團을 對象으로한 調查研究가 先行되어 性教育의 基礎資料로 提供되어야 하겠으며, 本研究도 이러한 目的의 一部가 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1. 姜吉遠外 3人：家族計劃과 母性 保健,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78.
2. 강준상：韓國 學生들의 家族計劃과 性에 對한 實態 調查報告, 國際家族計劃 連盟 西太平洋 地域會議 報告書, 1970.
3. 具本錫：異性交際에 關한 調查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1975.
4. 權 鈞：스웨덴의 性教育에 對한 評價, 教育科學：中央 教育研究所 1968.
5. 金 明：大都市 一部 高等學校 學生들의 性 및 家族觀에 關한 調查研究, 延世大學校, 保健大學院 1979.
6. 金玉岐：性教育의 理論의 背景, 教育科學, 中央教育研究所, 1968.
7. 金元坤：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性教育 問題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6卷 1號, 1969.
8. 金和貞：女高 卒業班 學生들의 生殖 生理와 關聯된 知識에 關한 調查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82.
9. 변희자：一部 高等學校 學生들의 性에 對한 知識 및 態度에 關한 調查研究, 最新醫學 第22卷 3號, 1979.
10. 서울特別市 教育研究院：性教育 資料(教師用), 1983.
11. 李東植：性教育의 方法과 範圍, 새교육, 大韓 教育 聯合會, 1970.
12. 梨花女子大學校, 人間發達 研究所：中高中生을 위한 性教育, 教育出版社, 1982.
13. 中央教育研究所：純潔 教育을 위한 基礎調查. 배영사, 1965.
14. 崔 炫：人體生理學, 壽文社, 1976.
15. Freud, S. (金聖泰 譯)：精神分析 入門. 三省出版社.
16. Corlfred, B, Jessie, B：The Individual, Sex and Society, The Johns Hopkins Press, 1969.
17. Elizabeth, B.C. Linbania, J.：Pregnancy, The teenager and Sex Education, A.J.P.H Vol.61, No.9, 1971.
18. Gorden, S.：The Case for a moral Sex Education in the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1978.
19. Harlod, L.L. Tyana, P.：Sexuality-Knowledge and Attitudes, Am. J. of Nursing, Vol.75, No. 11, 1975.
20. Homans, G.C.：The Human Group,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0.
21. Hurlock, E.B.：Adolescent Development, McGraw-Hill Book Co. 1949.
22. Johnson, W.R.：Human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Lea & Febiger Co. 1969.
23. Lancet. M. Modan, B. Kavenaki, S. Antonovski, H. Shoham, I.：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Israel; Adolescents, A.J.P.H, Vol.68, No.11, 1978.
24. Peggy, B., Sex and Society：Teaching the Conne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25. Philip, H. Nicholas, A.A.：A comparison of Perceived and Actual Sex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78.
26. Shepherd, C.R.：Small Groups, Chandler Publishing Co, 1964.
27. Thornburg, H.D.：Adolescent Sources of Information on Sex,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28. Vacalis, T.D., Evelyn, H, James, G.：The Effect of the Methods of Teaching Sex Education on the Behaviors of Stud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79.